

# 중국 宜興 紫沙壺와 영국 붉은 석기 주자(Red Stoneware)\*: 조지안 시대 풍속화에 보이는 다기세트를 중심으로

이정민\*\*

- I. 머리말
- II. 조지안 시대 영국 차 문화와 중국자기의 유행
- III. 영국 풍속화 속의 다기세트 구성과 붉은 석기 주자의 특징
- IV. 중국 의흥 자사호와 영국 붉은 석기 주자의 영향관계
- V. 맺음말

##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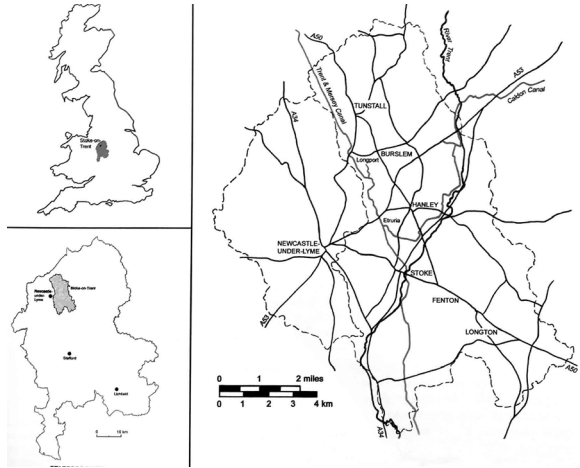
18세기 조지안 시대의 영국에서는 집단 초상화인 컨버세이션 피스(Conversation Piece)가 유행하였다. 이는 풍속화의 일종으로, 실내 혹은 실외를 배경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의 모임을 주제로 하였다. 컨버세이션 피스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격식을 차린 전신상, 반신상 등 전통

\* 일반적으로 한국도자사에서는 태토와 소성 온도에 따라 도기(陶器, earthenware)와 자기(瓷器, porcelain)로 구분한다. 반면 서양에서는 도자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석기(炆器, Stoneware)라는 특정한 분류를 같이 사용한다. 석기를 규정하는 조건은 1200-1400℃ 정도에서 소성시 유리질화되어 자기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불투명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중국 宜興 紫沙壺는 영국에서 석기로 분류되며 영국의 붉은 석기 또한 1200℃ 이상에서 소성되어 유리질화된 강도 높은 자기와 가까운 성질의 불투명체인 석기로 규정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서양에서의 도자용어 표기법은 다음 책을 참조. Louise Ade Boger, *The Dictionary of World Pottery and Porcelain: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Present* (New York: Scribner, 1971).

\*\* 고려대학교



도 1 중국 의흥 지도 (Valfré, Patrice. *Yixing: Teapots for Europe*. p. 93)



도 2 영국 스태퍼드셔 지도 (Goodwin, Jonathan and Barker, David. *Small Pieces of History: Archaeological Ceramics from Tunstall, Stoke-on-Trent*. p. 1)

적인 초상화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요소를 강조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다.<sup>1</sup> 또한 전체적인 구도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더욱 부각되면서 묘사된 인물들의 ‘대화 주제’가 되는 사물에 이목이 집중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풍속화의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64×76cm<sup>2</sup>인 것은 조지안 시대의 소규모 인테리어를 고려한 것이면서 동시에 당시 경제적으로 융성했던 부르주아 계급의 소비욕구와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풍속화의 주제로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차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종종 그려지는데 그림 속에 등장하는 다기세트가 다양한 형태와 양식의 다도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조합은 당시 중국에서 수입되었을 자사호와 청화백자의 조합, 청화백자와 은제 다구의 조합 그리고 유상채 다기세트 등이다. 그 중에서도 자사호와 청화백자의 구성은 18세기 초 영국에 차 문화가 유입된 시점부터 널리 보급되는 시점인 18세기 중반까지도 지속적이면서 제일 많이 보이는 조합이다. 따라서 조지안 시대의 풍속화는 18세기 영국의 차에 따른 물질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자기가 이미지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그림으로 소비되

<sup>1</sup> Ellen G. D’Oench, *The Conversation Piece: Arthur Devis & His Contemporaries* (New Haven: Yale Center for British Art, 1980), p. 7.

<sup>2</sup> 아서 디비스(Arthur Devis, 1711-1787)는 풍속화 화가 중에서도 281점의 다작을 남겼는데 그의 작품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평균 반신상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64×76cm이다. D’Oench, 앞의 책, pp. 1-2.

는 현상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조지안 시대의 풍속화에 보이는 다기세트 안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수출된 의흥(宜興) 자사호(紫沙壺)와 이를 모델로 삼아 영국 스탠퍼드셔(Staffordshire)에서 새롭게 제작된 붉은 석기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도 1, 2). 이를 통해 중국과 영국 간의 무역 양상과 당시 영국 사회가 어떻게 중국의 물질문화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모습 등, 양국 간 문화적인 영향관계를 그려 볼 수 있겠다.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유럽의 차, 커피 그리고 초콜릿의 음용문화<sup>3</sup>, 윌리엄 호가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도자기<sup>4</sup> 그리고 영국 도자 다구의 시대별 스타일<sup>5</sup> 등의 주제를 논한 것이 있다. 한편 도자 무역이 가장 활발했던 18세기에 고가 수입품인 중국 도자기가 영국의 기존 도자 생산과 시장의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연구는 당시 영국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던 차 문화의 명성에 비해 미진한 수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풍속화를 기반으로 유물자료, 동인도회사의 수출입 기록, 영국 내 소비지 발굴 자료와 난파선 출수 자료를 살펴보겠다.

## II. 조지안 시대 영국 차 문화와 중국자기의 유행

### 1. 영국내 차 문화의 유입과 차 무역 기록

영국에 차가 처음 소개된 시기는 1645년경으로 런던의 민싱 레인(Mincing Lane)<sup>6</sup>에서 처음으로 차가 경매에 붙여지면서 커피, 초콜릿과 함께 17세기 유럽에서 음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 1657년 토마스 가웨이(Thomas Garraway)라는 상인이 런던에 커피하우스를 오픈하였는데, 커피와 함께 차는 약용으로 소개되었다.<sup>7</sup> 차가 약용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1662년 왕정복고로 즉

<sup>3</sup> Brown Peter, *In Praise of Hot Liquors: the Study of Chocolate, Coffee and Tea-Drinking 1600-1850* (York: York Civic Trust, 1995).

<sup>4</sup> Lars Tharp, *Hogarth's China: Hogarth's Paintings and Eighteenth-Century Ceramics* (London: Merrell Holberton, 1997).

<sup>5</sup> Robin Emmerson, *British Teapots and Tea Drinking 1700-1850* (London: HMSO, 1992), Steven Goss, *British Tea and Coffee Cups, 1745-1940* (Oxford: Shire Publications, 2008).

<sup>6</sup> 민싱 레인 (Mincing Lane)은 펜처치가(Fenchurch Street)와 그레이트 타워가(Great Tower Street)를 연결하는 런던의 짧은 일방통행로 이다. 이곳은 19세기 후반에 차와 향신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계 최고의 중심지였다.

<sup>7</sup> Helen Saberi, *Tea: A Global History* (London: Reaktion Books Ltd, 2010), p. 91.

위한 찻스 2세(1635~1685)의 왕비인 캐서린 브라간자(Catherine of Braganza: 1638~1685)의 일화를 들 수 있다. 캐서린 브라간자는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결혼해 올 때 값비싼 차와 향신료, 설탕을 배에 가득 싣고 왔는데, 영국 포츠머스(Portsmouth) 항구<sup>8</sup>에 내린 후 앓던 심한 배 멀미를 중국 수입 다기로 차를 내려마시며 해소했다고 한다.

이어진 차의 상업적 수요증가는 당시 아시아지역의 무역을 독점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활동을 통해 쉽게 엿볼 수 있다. 동인도 회사의 정기적인 차의 수입은 1701년부터 1706년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고 1713년에 이르러서는 광저우의 상업 항구에 대한 본 사의 무역 권한이 따로 보장되었다. 그에 따라 1717 부터는 중국과의 정기적인 차 무역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sup>9</sup> 1700년에 14,000 파운드에 상당하는 차 수입이 1760년에는 969,000 파운드 그리고 1790년에는 1,777,000 파운드로 무역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sup>10</sup> 그 중에서도 섬세한 품미와 상품질로 고가의 가격에 거래된 녹차는 초기 영국 상류층 사회에서 유행하였다. 녹차에 이어 1720년 이후부터는 저가의 홍차도 함께 거래 되었는데, 전체적인 수입 통계에 따르면 홍차의 점유율이 한 세기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1</sup>

차의 품질, 품미와 가격은 당연하게도 생산지와 제조 과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동인도회사는 중국에서 4가지 종류의 홍차를 수입했는데 식물학자 로버트 포춘 (Robert Fortune)<sup>12</sup>에 의하면 그 중 가장 훌륭하고 값비싼 종류는 ‘백호(白毫, Pekoe)’였다. 그 다음으로는 성숙한 잎으로 만들어진 ‘소종(小種, Souchon)’이었으며, 워낙 높은 수요로 광저우에서는 그 가격이 백호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공부(工夫, Congo)’라는 품종은 크고 거친 잎으로 만들어졌고 ‘무이차(武夷茶, Bohea)’는 가장 마지막에 수확된 잎으로 만들었다.<sup>13</sup> 백호와 소종의 점유율은 총 수입의 2% 미만이었으며 대개 1파운드(lb)당 10파운드(£10)로 거래되었다. 무이차는 4파운드에 거래되었으

<sup>8</sup> 영국 남부의 군항

<sup>9</sup> Kirti N. Chaudhuri, *The Trading World of Asia and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1660-176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388.

<sup>10</sup> Claire Masset, *Tea and Tea Drinking* (Oxford: Shire Publication Ltd, 2010), pp. 12-13.

<sup>11</sup> 1721년부터 1730까지 수입된 차의 비율은 녹차 55%, 홍차 45%였다. 이후 1731년부터 1740년까지는 녹차 45%, 홍차 55%로 홍차 비율이 전체량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이후 차츰 홍차 비율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60년대는 홍차 비율이 60%를 넘어선다. Chaudhuri, 앞의 책, p. 397.

<sup>12</sup> 로버트 포춘 (Robert Fortune, 1812-1880), 스코틀랜드 출신의 식물학자. Robert Fortune, *Three Years' Wanderings in the Northern Provinces of China, Including a Visit to the Tea, Silk, and Cotton Countries; with an Account of the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of the Chinese, New Plants, etc.* (London: John Murray, 1847).

<sup>13</sup> Fortune, 앞의 책, p. 222.

며 수입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1721~30년에는 38%, 1751~60년에는 63%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녹차도 홍차와 마찬가지로 품질별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었는데, ‘대주(大珠, Bing)’ 또는 임페리얼(Imperial), ‘희춘(熙春, Heyson),’ 그리고 ‘송라(松蘿, Singlo)’의 순서로 구분된다. 이 중 송라는 무이차 이후 가장 중요한 수입 품목이었으며 가격은 일반 홍차보다 약간 비싸게 거래되었다.<sup>14</sup>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1784년 감세법안(Commutation Act of 1784)이 도입되면서 영국 재정수입이 안정되고 영국 내에 차 문화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발전된다.<sup>15</sup> 이렇게 상류층 뿐만 아니라 전 대중들에게 차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면서 급격히 성장하는 차 수요에 부합하는 다구인 중국 수입 자기의 유입도 함께 증가하였다.

## 2. 동인도회사의 중국수입자기 기록

18세기 동안 영국 내로 수입된 차의 양은 18세기 초 786,335 파운드에서 18세기 말 240,438,275파운드까지 증가한다. 중국과의 정기적인 도자 무역은 차와 마찬가지로 1717년부터 시작된다. 한편 수입된 중국자기는 총 무역 물량의 2% 정도로, 차가 차지하는 비율의 95%에 비하면 사실상 그 비중이 현저히 낮다. 그러나 그 수입을 대비 1725년 영국 내의 다기 보유율은 80%를 넘어선다.<sup>16</sup> 초기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역물품 주문서에는 수입된 중국자기의 수량, 용도, 장식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있다. 본고에서 주목 하고자 하는 자사호를 살펴보기에 앞서 중국자기의 전반적인 수입 양상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수입된 중국자기는 단순 사치품인 장식기보다는 실용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식기세트나 다기세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용기는 대부분 저녁식사와 차·커피·초콜릿의 세 가지 음료를 위한 세트로 분류된다. 1712년 무역선 로얄 블리스(Loyal Bliss)의 물품목록에 따르면 식기세트, 초콜릿과 차를 위한 다

<sup>14</sup> Chaudhuri, 앞의 책, pp. 397-398.

<sup>15</sup> Hoh-Cheung and Lorna H, Mui, "The Commutation Act and the Tea Trade in Britain 1784-1793," *The Economic History Review* 16, no. 2 (1963). 영국내 차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18세기 중반 영국 정부는 차에 대한 세금으로 119%를 부과하였다. 이는 결국 차 밀수로 이어져 영국 동인도 회사의 합법적인 경제 이익과 영국 정부의 재정수입에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밀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수상은 1784년 Commutation Act를 도입하여 차에 대한 세금을 119%에서 12.5%로 대폭 인하하였다.

<sup>16</sup> Andrew Madsen and White Carolyn L, *Chinese Export Porcelain*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2011), pp. 22-23.

구 등이 대량으로 주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기세트로는 둥근 접시(round plate) 7점으로 구성된 세트가 300개, 가리비 조개껍질 모양접시(scallop-shall plate)와 소스 그릇(sauce-boat) 등 6점으로 구성된 세트 2,000개, 서빙용 접시(serving dish) 4,000개와 기타 다양한 작은 그릇들이 비슷한 수로 주문되었다. 또한 다기세트로는 손잡이가 있는 초콜릿 컵(chocolate cup with handle) 40,000점, 찻잔과 잔 받침(tea cup with matching saucer) 110,000점, 찻주전자(tea pot) 6,000점, 우유 저그(milk jug) 10,000점과 두 개의 다른 크기의 설탕그릇(sugar bowl)으로 구성된 세트도 2,000개나 주문되었다. 이 자기들은 대부분 청화, 다색(polychrome painted) 또는 에나멜 장식(enamelled)으로 그 수가 균등하게 나뉘었다.<sup>17</sup>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중국 의홍 자사호는 1670년대부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무역품으로 유럽에 유입되었다. 자사호는 도기와 달리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공질이 아니어서 물이 새지 않으며 내화도가 높은 석기에 속하므로 뜨거운 열에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자사호는 유럽에 차가 소개되었을 때부터 주자에 적합하다고 여겨졌고 그 실용성 때문에 차를 접하게 된 영국인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자사호에 관한 수입기록은 앞서 설명한 청화백자에 비해 찾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1752년 싱가포르(Singapore)의 남쪽 부근에서 발견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무역선인 겔더말스호(Geldermalsen)에서는 총 140,000점의 도자기가 출수되었는데 이 중 자사호는 단 8점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청화백자와 같이 대량으로 들어온 주요 무역자기와는 다르게 자사호는 소량만 유입된 것으로 보아 화물 관리인의 개인적인 구입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8</sup> 또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량으로 수입된 자사호를 영국에서 새롭게 재해석 하여 제작한 붉은 석기가 필수품으로서의 역할을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실물자료와 함께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Ⅲ. 영국 풍속화 속의 다기세트 구성과 붉은 석기 주자의 특징

18세기 중반부터 상업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중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봉건 사회구조를 해체시켰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 체제가 산업전반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소비문화

<sup>17</sup> Kirti N. Chaudhuri, 앞의 책, pp. 407-408.

<sup>18</sup> Rose Kerr and Luisa E. Mengoni, *Chinese Export Ceramics* (London: V&A Publishing, 2011), pp. 132-133.

가 형성되었다.<sup>19</sup> 이 시기 무역을 통해 상업 활동으로 자본을 축적한 중산층의 사회 진입은 새로운 취향과 유행을 만들어냈다. 특히 무역을 통해 영국사회로 유입된 고가의 차와 중국수입자기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차나 도자기 같은 특정한 사치품들은 중산층에게 물건의 품질·만족감·유행과 취향·편리함과 같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었다.<sup>20</sup>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는 풍속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본 장에서 살펴볼 조지안 시대의 풍속화들은 모두 다기세트가 놓인 테이블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둘러앉아 서로에게 차를 권하는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특정 도자기가 풍속화를 통해 이미지로까지 확대 소비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조지안 시대에 풍속화가 유행하면서 18세기 중엽이 넘는 시점까지 보편적으로 보이는 조합은 중국 의흥(宜興)에서 제작된 자사호(紫沙壺)와 경덕진(景德鎮)의 청화백자로 이루어진 다기 세트의 구성이다. 본 장에서는 조지안 시대의 풍속화에 보이는 중국 자사호와 영국 붉은 석기의 형태와 장식을 실물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차 마시는 두 여인과 장교(Two Ladies and an Officer Seated at Tea)〉, 1715 (도 3)

이 그림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니콜라스 페르콜레(Nicolaes Verkolje, 1673-1746)의 작품으로 알려졌으나 영국인 화가가 그린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그림에 묘사된 가구, 의상 그리고 주요 사물이 18세기 초 북유럽의 시대적 특징을 잘 대변한다는 사실에서 근거한다. 예를 들어 높은 등받이의 검은색 의자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스타일이었고, 흑단(黑檀)처럼 보이도록 검은색으로 칠해진(ebonised) 원형 다탁과 은제 물 주전자



도 3 〈차 마시는 두 여인과 장교(Two ladies and an officer seated at tea)〉, c.1715, 캔버스에 유화, 63.5×76.2cm,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Victoria & Albert Museum)

<sup>19</sup> Goff, Moira and John Goldfinch, *Georgians Revealed: Life, Style and the Making of Modern Britain* (London: British Library Board, 2013), pp. 6-23.

<sup>20</sup> Maxine Berg, *Luxury & Pleasure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21.



도 3-1 <차 마시는 두 여인과 장교(Two ladies and an officer seated at tea)> 세부 이미지, c.1715, 캔버스에 유화, 63.5×76.2cm,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국제로 보인다. 이는 당시 동인도와의 무역을 통해 영국보다 앞서 부를 축적한 네덜란드의 유행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여인이 각각 입고 있는 짙은 녹색과 남색의 드레스는 1710-1720년대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형식이다. 또한 장교가 착용하고 있는 큰 주름장식의 붉은색 정장은 1700-1705년대 유행한 스타일이다.<sup>21</sup>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도구들이다(도 3-1). 붉은색의 주자와 손잡이가 없는 찻잔과 받침, 은수저, 설탕그릇, 사용한 찻잎이나 잔여물을 버리는 큰 그릇 형태의 퇴수기 등이 보인다. 왼쪽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곧은 자세로 앉아 찻잔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격식과 예를 갖춘 모습으로 차를 마시는 장면은 이 시기에 도 차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행위와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에 앉은 장교가 든 차통(tea caddy)안의 찻잎이 녹색인 것으로 보아 앞서 살펴본 차 무역기록에 서와 같이 이 시기 아직 녹차가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자리에 놓인 찻잔을 엮어놓은 것



도 4 <중국 의흥 자사호>, 16-17세기, 자사, 7cm×12cm, 성양예술문화재단(成陽藝術文化基金會, MAI Foundation), (Wong, Kin Leung, and Cheng Yang. Chinese yixing teawares: from the collection of the MAI Foundation. p.83)

<sup>21</sup> Victoria and Albert Museum, Two ladies and an officer seated at tea, <http://collections.vam.ac.uk> (accessed June 1, 2017).

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도구의 조합은 중국 수입 자기일까 아니면 영국에서 제작된 것일까? 일단 붉은색 주자의 사이즈가 옆에 놓인 찻잔의 사이즈에 비해 그리 크지 않고 몸체가 각이진 구형에 장식은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함께 사용되고 있는 청화백자 다구들에 비해 더욱 돋보인다. 실제 당시 제작된 중국 의홍 자사호도 대부분 크기가 차 한 잔정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sup>22</sup>였다고 한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거의 흡사한 의홍 자사호를 성양예술문화재단(成陽藝術文化基金會, MAI Foundation)의 소장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도 4). 한편 함께 사용된 청화백자 잔과 같이 꽃잎모양의 각형 잔 등 유사한 형태와 스타일의 자기가 봉따우(Vung Tau, 1695)난파선과 카마우(Ca Mau, 1723-1735)난파선의 출수품 목록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강희연간(1661-1722)에 유럽으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23</sup>

## 2. 〈차 마시는 영국인 가족(An English Family at Tea)〉, 1720 (도 5)

〈차 마시는 영국인 가족〉에 묘사된 가족과 하인들의 모습은 요셉 반 아켄(Joseph van Aken, 1699-1749)<sup>24</sup>이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에서 런던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차와 관련된 모든 요소인 다탁, 은기, 자기 다구 등은 모두 고가의 상품으로 그림 속의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이나 은기가 퀸 앤(Queen Anne)양식<sup>25</sup>임을 고려하면 172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묘사된 건축적 설정이 다소 과



도 5 요셉 반 아켄(Joseph Van Aken), 〈차 마시는 영국인 가족(An English Family at Tea)〉, c.1720, 캔버스에 유화, 99.4×116.2cm, 영국 테이트 모던(Tate Modern)

<sup>22</sup> Geoffrey A. Godden, *Oriental export market porcelain and its influence on European wares* (London: Granada, 1979), p. 38.

<sup>23</sup> 강희(1661-1722)연간 유럽으로 수출된 자기의 양식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Andrew Madsen and White Carolyn L, 앞의 책, pp. 59-64.

<sup>24</sup> 요셉 반 아켄은 플랑드르 화가로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며 초상화, 장르화 그리고 직물 묘사 전문 화가로서 많은 유명 예술가들의 의상 화가로 고용되기도 하였다. Tate, Joseph Van Aken, <http://www.tate.org.uk> (accessed June 1, 2017).

<sup>25</sup> Michael Snodin, *Design & the Decorative Arts: Britain, 1500-1900* (London: V&A, 2001).



도 5-1 요셉 반 아켄(Joseph Van Aken),  
 〈차 마시는 영국인 가족(An English  
 Family at Tea)〉 세부 이미지, c.1720,  
 캔버스에 유화, 99.4×116.2cm,  
 영국 테이트 모던(Tate Modern)



도 6 〈영국 스테퍼드셔 붉은 석기 주자〉,  
 1750-1765, 자사, 22.9×20.3cm, 빅토  
 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장되어 보일 수는 있으나, 가족과 하인들의 차 예식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에서 찻잎을 찻잔에 옮겨 담는 부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닥에 놓인 차 보관함은 대개 부인이 자물쇠를 가지고 통제하였다. 또한 차 보관함이 두 종류의 차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된 것으로 보아 앞서 본 무역기록에서와 같이 이 시기에는 녹차와 홍차가 같이 음용된 것을 알 수 있다.<sup>26</sup>

테이블 위에는 각기 다른 재질의 다양한 다도구들이 놓여있다. 테이블 중앙에는 붉은색의 석기로 보이는 조그만 주자의 뚜껑이 열려있다. 그 앞에서 하인이 은제 주전자의 물을 주자에 붓고 있는데 오른쪽에 가열기구 있는 것으로 보아 뜨거운 찻물을 주자에 옮겨 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차 마시는 두 여인과 장교〉 그림에서 묘사된 붉은색 주자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자의 색깔은 이전과 달리 밝은 갈색이고, 형태는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된 커피 주자처럼 몸체가 긴원통형에 아래가 볼록하며 주구는 S자로 길다(도 5-1). 태토는 자사호와 같이 붉은색의 흙으로 성형하지만 형태는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은제 주전자를 따라 스테퍼드셔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 보이는 조롱박 형태의 주자는 17세기 말 영국에서 제작된 찻주자의 초기 형태로 은기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sup>27</sup>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붉은 석기 주자가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에 소장되어있다(도 6).

중국에서 의흥 자사호가 수입되면서 독일 마이센

26 그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소장처 참조. Tate, An English Family at Tea, <http://www.tate.org.uk> (accessed June 1, 2017).

27 Brown Peter, 앞의 책, p. 71.

의 뵈트거(Johann Friedrich Bottger), 네덜란드의 아레 드 밀드(Arij de Milde)공방 그리고 영국에 서는 일러스 형제(Elers brothers)가 이를 모방한 붉은 석기의 찻주전자와 커피 주자를 제작하였다.<sup>28</sup> 유럽에서 제작된 주자는 자사호와 같이 붉은색의 흙으로 성형하지만 장식이나 형태적인 면에서 유럽의 은제 주자나 서양식 모티프로 장식되었다. 그 옆에 놓인 백색의 소금유약석기(salt-glazed stoneware)<sup>29</sup> 혹은 백자로 보이는 우유 저그가 있다. 잔은 손잡이가 없는 청화백자 찻잔과 몸체가 긴 원통형의 손잡이가 있는 커피잔이 있다. 그리고 찻잔을 씻은 물이나 차 잔여물 등을 담는 사발형태의 청화백자 퇴수기도 보인다. 그림에서 보이는 손잡이가 있는 잔과 청화백자 찻주전자 받침과 유사한 형태의 다구가 카마우 난파선 출수품에서도 보인다.<sup>30</sup>

### 3. 〈조나단 타이어스와 그의 가족(Jonathan Tyers and His Family)〉, 1740 (도 7)

조나단 타이어스는 런던 시민을 위해 굉장히 세련된 휴양지를 계획하여 복스홀(Vauxhall)에 유람지(Pleasure Garden)를 만들었다. 그는 프랑스 태생의 영국조각가인 루블리아크(Louis-François Roubiliac)에게 정원을 위한 헨델의 동상을 만들 것을 의뢰했고, 추가적으로 오케스트라 파빌리온과 정교하게 계획된 산책로 및 분수 그리고 사원들을



도 7 프란시스 헤이만(Francis Hayman), 〈조나단 타이어스와 그의 가족(Jonathan Tyers and his family)〉, 1740, 캔버스에 유화, 77.8×106.2cm, 영국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 London)

<sup>28</sup> Godden, 앞의 책, p. 38.

<sup>29</sup> 소금 유약 석기는 영국에서 17세기 말부터 스테퍼드셔의 스톡온트렌트(Stoke-on-Trent)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태토는 볼 클레이(ball clay), 실리카(silica)나 하소(煨燒)처리한 부싯돌(flint)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데, 소성시 가마 온도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 소금을 투척하여 증발하면서 생기는 산화나트륨(sodium oxide)이 실리카와 반응하며 유약을 시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자기처럼 강도가 높아 주자, 저그 등 다양한 다도구 뿐만 아니라 실용기와 인물상으로도 많이 제작되었다. Diana Edwards and Rodney Hampson, *White Salt-Glazed Stoneware of the British Isles* (Suffolk: Antique Collector's Club Ltd., 2005), pp. 64-116.

<sup>30</sup> 강희연간 유럽수출을 목적으로 주자 받침 같이 특정 용도와 유럽의 음다 문화에 적합한 손잡이가 달린 잔이 제작되었다. Đinh Chiên Nguyễn, *The Ca Mau Shipwreck 1723-1735* (Ha Noi: Ca Mau Department of Cultural and Information, The National Museum of Vietnamese History, 2002).



(左)도 7-1 프란시스 헤이만(Francis Hayman), <조나단 타이어스와 그의 가족(Jonathan Tyers and his family)> 세부 이미지, 1740, 캔버스에 유화, 77.8×106.2cm, 영국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 London)

(中)도 8 <중국 의홍 자사호>, 1675-1725, 자사, 높이 10.5cm,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필자촬영

(右)도 9 <영국 스탠퍼드셔 붉은 석기 주자>, c. 1765, 자사, 9.5×13.5cm,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필자촬영

설립했다. 프란시스 헤이만(Francis Hayman, 1708-1776)이 그린 <조나단 타이어스와 그의 가족(Jonathan Tyers and His Family)>에는 타이어스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그리고 두 아들과 두 딸이 다락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다회를 즐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가운데 학사모를 쓰고 있는 장남 토마스는 후에 정원 관리를 맡게 된다. 벽난로 위에는 타이어스의 후원자인 제임스 1세의 장남이자 웨일즈의 왕자인 헨리 프레드릭(Frederick Prince of Wales)의 초상화가 조각되어 있다.<sup>31</sup>

본 그림에 묘사된 다기세트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육각형의 의홍 주자 혹은 영국 스탠퍼드셔 지역에서 제작된 붉은 석기 주자와 함께 영국 소금유약 밀크 저그와 청화백자 찻잔과 주자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도 7-1, 8, 9). 그리고 깎터말슨호에서 출토된 공을 물고 있는 사자개가 조각된 뚜껑의 팔각형 자사호와도 흡사하다(도 20).



도 20 <깎터말슨호에서 인양된 자사호>, c.1750, 홍콩예술박물관(Hong Kong Museum of Art) (Valfré, Patrice. *Yixing: teapots for Europe*. p. 146)

<sup>31</sup> National Portrait Gallery, Jonathan Tyers and His Family, <http://www.npg.org.uk> (accessed May 25, 2017).

#### 4. 〈개스고와뉴 가족(The Gascoigne Family)〉, 1740 (도 10)

프란시스 헤이만(Francis Hayman, 1708-1776)은 영국왕립미술원(Royal Academy)을 창립한 멤버 중 하나로 1769년부터 1772년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며 학생들을 육성하는데도 힘썼다. 그가 작고한 해인 1776년에는 영국작가협회(Society of British Artist)의 회장을 역임하였다.<sup>32</sup>



도 10 프란시스 헤이만(Francis Hayman), 〈개스고와뉴 가족(The Gascoigne Family)〉, c.1740, 캔버스에 유화, 100.3×126.4cm, 헌팅턴 도서관,미술관, 식물원(The Huntington Library, Art Collections, and Botanical Gardens)

이 그림에서 묘사된 다도구의 구성도 중국 의홍 자사호와 청화백자 잔과 받침 그리고 퇴수기의 구성으로 되어있다. 다만 여기에 묘사된 주자의 형태에서 손잡이 부분이 꼬임 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여겨진다(도 10-1). 그림과 같이 사각형의 몸체와 뚜껑에 연화문과 매화문 첩화장식이 되어 있는 예의 자사호는 당시 유럽 수출 목적으로 제작된 자사호로 보인다(도 11).<sup>33</sup> 〈조나단 타이어스와 그의 가족〉과 같은 시기에 그려졌지만 여기에는 우유 저그가 보이지 않고 청화백자 잔에 담겨있는 것이 녹색인 것으로 보아 녹차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 10-1 프란시스 헤이만(Francis Hayman), 〈개스고와뉴 가족(The Gascoigne Family)〉 세부 이미지, c.1740, 캔버스에 유화, 100.3×126.4cm, 헌팅턴 도서관, 미술관, 식물원(The Huntington Library, Art Collections, and Botanical Gardens)



도 11 〈중국 의홍 자사호〉, 1675-1725, 자사, 9.5cm×14.5cm,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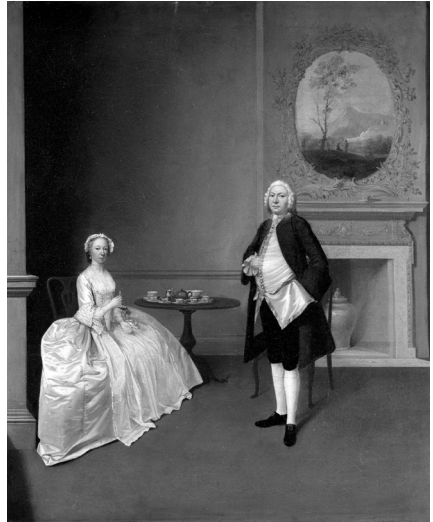
<sup>32</sup> George Charles Williamson, *English Conversation Pictures of th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New York: Hacker Art Books, 1975), pp. 10-11.

<sup>33</sup> 제시된 예의 자사호는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되던 자사호와 달리 작가의 이름 등의 마크가 찍혀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Rose Kerr and Luisa E. Mengoni, 앞의 책, pp. 132-133.

## 5. 〈힐 부부(Mr. and Mrs. Hill)〉, 1750-51 (도 12)

18세기 ‘풍속화의 왕자’로 칭송될 만큼 다작을 남긴 아서 디비스(Arthur Devis, 1712-1787)는 주로 런던과 프레스턴 지역에서 활동하며 상류층과 전문가 층을 상대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 1741년에 처음 초상화를 그렸고 본 작품이 그려진 1743년경에는 이미 풍속화가로 유명했다. 그는 1761년부터 작가자유협회(Free Society of Artists)<sup>34</sup>에서 전시를 했고, 1768년에는 회장으로 활동 하였다.<sup>35</sup>

〈힐 부부(Mr. Hill and Mrs. Hill)〉에는 힐씨 내외가 다기세트가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엄숙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특히 힐씨가 한 손은 코트 안으로 집어넣고 바른 자세로 서 있는 포즈는 당시 에티켓 매뉴얼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디비스는 보통 작업할 때 얼굴만 먼저 스케치하고 작업실에서 나무로 만든 인형이나 마네킹에 복장도 입



도 12 아서 디비스(Arthur Devis), 〈힐 부부(Mr. and Mrs. Hills)〉, 1750-1751, 캔버스에 유화, 76.1×63.5cm, 예일대학교 영국미술센터(Yale Center for British Art), 필자촬영

혀서 나머지 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물들의 포즈가 다소 어색하게 굳어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탈리아 조경을 그린 작품이 벽난로 위에 걸려있고 아래 벽난로 안쪽으로 중국 수입자기로 보이는 항아리가 놓여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실내 장식이 없다. 당시 사회 전반적인 상황과는 대비되는 아주 간결한 인테리어가 부부의 도덕적 청렴함을 보여준다.<sup>36</sup>

서인도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다탁 위에는 붉은색의 주자와 청화백자 받침 그리고 은제 우유 저그가 놓여 있다(도 12-1). 디비스의 작품은 세부적인 표현력이 뛰어나 묘사된 다구의 디테일이 실물을 보는 것과 같이 묘사되었다. 7개의 찻잔은 5명의 손님이 올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전

<sup>34</sup> Graves Algenon, *The Society of Artists of Great Britain, 1760-1791, the Free Society of Artists, 1761-1783: a Complete Dictionary of Contributors and Their Work from the Foundation of the Societies to 1791* (Bath: Kingsmead Reprints, 1969).

<sup>35</sup> Arthur Devis, National Gallery of Art, <https://www.nga.gov> (accessed June 15, 2017).

<sup>36</sup> Yale Center for British Art, Mr. and Mrs. Hill, <http://collections.britishart.yale.edu> (accessed June 15, 2017).



도 12-1 프란시스 헤이만(Francis Hayman), <개스코와뉴 가족(The Gascoigne Family)> 세부 이미지, c.1740, 캔버스에 유화, 100,3×126.4cm, 헌팅턴 도서관, 미술관, 식물원(The Huntington Library, Art Collections, and Botanical Gardens)

체적인 구성이 이전 시기와 같은 조합이지만 주자의 사이즈가 커지고 장식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붉은색 주자는 주구와 손잡이, 뚜껑의 손잡이가 모두 나무 가지를 그대로 재현한 듯하고 몸체에는 대조되는 노란색 흙을 이용하여 첩화장식으로 꽃 넝쿨무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무나 식물 꽃 등 자연을 장식 모티브로 한 자사호가 이 시기에 많이 제작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장식된 자사호의 예가 깬터말슨호에서 출수된 용무늬 첩화 장식의 자사호에서도 보인다(도 20-1). 실제로 아주 흡사한 예가 중국 의흥 자사호에서도 보이며, 도예 박물관 및 미술관(Potteries Museum & Art Gallery)에 소장되어있는 영국 스태퍼드셔(Staffordshire)에서 제작된 붉은 석기 주자와도 유사하다(도 13, 14).

18세기 중반에 운영되었던 클랩햄의 커피하우스(Clapham's coffeehouse 1746-1782)발굴에서도 본 그림에서 보이는 붉은 석기 주자와 같은 예가 출토되었다(도 15). 이곳에서는 스태퍼드셔 타



(左)도 13 <중국 의흥 자사호>, 1700-1750, 자사, 16.5cm×24.5cm, (Valfré, Patrice. Yixing: teapots for Europe. p. 223)

(中)도 14 <붉은 석기 주전자>, c.1750-1770, 석기, 도예 박물관 및 미술관(Potteries Museum & Art Gallery)

(右)도 15 <영국 커피 하우스에서 발굴된 도자기 및 유리기>, c.1775-1780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Newsletter number 23 (November 2015): Chinese Porcelain from an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Coffeehouse. p. 25)

입의 흰 소금 유약 석기와 중국 청화백자가 동시에 발견되어 여러 종류의 다구가 함께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sup>37</sup>

## 6. 〈햄튼 하우스 정원에서 다회를 즐기는 데이비드 개릭 부부 (The Garden at Hampton House with Mr and Mrs David Garrick Taking Tea)〉, 1762 (도 16)

요한 조파니(Johann Zoffany, 1733-1810)는 18세기 후반 영국 풍속화의 선두주자였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에서 태어났으며 로젠버그 출신의 마틴 스피어(Martin Speer)의 가르침을 받았다. 1750년에는 로마를 방문해 아고스티노 마수치(Agostino Masucci)와 함께 공부하였고 1760년에 영국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1762년 예술인 협회(Society of Artists)에서 첫 전시를 하였으며 1769년에 왕실 아카데미의 회원이 된다. 또한 본 그림의 주인공이자 당시 영국 최대의 명배우인 데이비드 개릭(David Garrick, 1717-1779)의 후원을 받았다. 개릭은 1747년에서 1776년까지 존 레이시(John Lacy)와 함께 드루어리 레인 극장(Drury Lane Theatre)을



(左)도 16 요한 조파니(Johann Zoffany), 〈햄튼 하우스 정원에서 다회를 즐기는 데이비드 개릭 부부(The Garden at Hampton House with Mr and Mrs David Garrick Taking Tea)〉, 1762, 캔버스에 유화, 99.7×125cm

(右)도 16-1 요한 조파니(Johann Zoffany), 〈햄튼 하우스 정원에서 다회를 즐기는 데이비드 개릭 부부(The Garden at Hampton House with Mr and Mrs David Garrick Taking Tea)〉 세부 이미지, 1762, 캔버스에 유화, 99.7×125cm

<sup>37</sup> Andrew Hall and Craig Cessford, "Chinese Porcelain from an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Coffees House,"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Newsletter* 23 (November, 2015), pp. 25-29.

경영했다.

원래는 〈셰익스피어 사원에 있는 데이비드 개릭부부(The Shakespeare Temple at Hampton House, with Mr and Mrs David Garrick)〉그림과 같은 해에 세트로 그려졌다. 이 그림에서도 하인이 오른쪽 코너에서 다구를 들고 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붉은색 석기가 등장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험튼 하우스 정원 그림의 다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개릭 부인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붉은색 주자를 보면 장식이 없는 단순한 원통형이며 주구도 굴곡 없이 일직선으로 뻗어있다(도 16-1). 이와 비슷한 것이 의흥 자사호와 스탠퍼더서 생산품에서도 발견되며, 색감도 밝은 계통의 갈색이다(도 17, 18). 또한 같이 사용된 청화백자 찻잔과 퇴수기 그리고 우유 저그가 보인다. 디비스 작품의 〈힐 부부〉에서는 은제의 우유 저그가 지금과 같은 조합으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우유 저그도 청화백자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左)도 17 Qian Zhong Lin, 〈중국 의흥 자사호〉, 17세기 중반, 자사, 8.4cm×12cm, 성양예술문화재단(成陽藝術文化基金會, MAI Foundation), (Wong, Kin Leung., and Cheng Yang. Chinese yixing teawares: from the collection of the MAI Foundation. p. 319)

(右)도 18 〈영국 스탠퍼더서 붉은 석기 주자〉, c.1760, 자사, 10.8cm×9.2cm,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 IV. 중국 의흥 자사호와 영국 붉은 석기 주자의 영향관계

일반적으로 18세기 후반 영국의 다기세트는 주자, 주자 받침, 차 보관함, 우유 저그(간혹 뚜껑이 있는), 설탕 그릇과 뚜껑, 퇴수기, 수저 및 수저 받침, 12개의 찻잔(혹은 손잡이가 달린 것), 12개의 커피잔(종종 6개 혹은 8개), 그리고 12개의 잔 받침으로 구성되었다. 간혹 커피 주자도 구

성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형적인 다기세트의 구성은 아니다.<sup>38</sup> 이러한 구성은 18세기 동안 영국의 차 문화와 더불어 당시 수입된 중국 자기와 영국 자기의 발전정도에 따라 계속 변화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국 의홍 자사호와 영국 붉은 석기를 중심으로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차가 음용되면서부터 함께 유행한 다기세트에는 중국 의홍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자사호가 청화백자 잔과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의 양상은 18세기 중반이 넘어서도 계속 보인다. 그렇다면 왜 주자도 찻잔과 동일한 소재인 청화백자가 아니라 자사호를 사용한 것일까?

자사호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자기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가소성과 통기성이 좋아 차의 맛과 향이 잘 변질되지 않고 깊은 차의 맛을 잘 우려낸다는 점이다. 자사가 지니고 있는 보온 능력은 겨울에도 열을 긴 시간동안 유지한다. 이러한 특징 덕에 여름에도 맛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내화도가 높아서 잘 깨지지 않으므로 실용적이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색과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한 자사호의 매력은 자기와는 다르게 따뜻한 분위기와 실용적이면서 훌륭한 미적 요소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sup>39</sup>

자사는 중국 강소성 남부에 있는 도시인 의홍지역 산에서 채취된 점토의 이름이다. 정축진(丁蜀鎮) 일대 황룡산 광산에서 생산되는 철이 함유된 점토-석영-운모 성분의 분사암(紛砂岩)으로 기본적으로 자사는 자니(紫泥), 홍니(紅泥) 그리고 녹니(綠泥)로 나누어진다. 이 점토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섞여서 다양한 톤을 가진 흙색을 만들어낸다.<sup>40</sup>

유럽으로 수출되었던 자사호는 대부분이 붉은색 계통이며 간혹 노란색, 갈색 그리고 검은색도 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유통되었던 자사호는 수출용과 구분되는데 실제로 1700년도부터 약 50년 정도는 의홍의 몇몇 작업장에서 유럽과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붉은 점토를 이용해 자기를 제작하였다. 이들의 형태와 장식은 전통적인 보라색 석기와 달랐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밝고 붉은 점토를 사용한다. 보라와 노란 계열은 아주 드물었다. 장식이나 표면의 질도 중국 내수시장인 복건(福建)이나 조산(潮汕)의 것 보다 질이 떨어지고 표면 마무리도 매끄럽

<sup>38</sup> Godden, 앞의 책, p. 28.

<sup>39</sup> Kin Leung Wong and Yang Cheng, *Chinese Yixing Teawares: from the Collection of the MAI Foundation* (Taipei: Art Media Resources, 2000), pp. 63-64.

<sup>40</sup> *Yixing Purple Clay Wares: the K.S. Lo Collection, Flagstaff House Museum of Tea Ware* (Hong Kong : Urban Council, 1994), pp. 19-20.

지 못하다. 둘째, 중국의 봉건 시기에 제작된 작품에는 의홍의 자니로 제작된 찻주자를 제외하고 작가의 서명이 된 것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수출 위주로 만들어진 작품에는 작가의 서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셋째, 당대의 경덕진 수출자기들과 달리 의홍 자사호는 서양적인 주제로 장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럽인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해 신비로움을 고조시켰다.<sup>41</sup> 자사호의 형태는 구형이나 원통형 그리고 사각형의 기하학적인 것과 식물의 잎이나 도식화된 꽃 등을 모티브로 한 것이 있다.<sup>42</sup>

당시 유럽으로 수출된 자사호의 기록과 난파선 출수품을 통해 그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영국은 17세기 말부터 네덜란드를 통해 차와 도자기 등의 무역품을 먼저 접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기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수출기록을 살펴보면 1679년 자카르타를 경유해 복건에서부터 유럽으로 붉은 찻주자를 담은 7개의 상자가 수송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680년에 암스테르담으로 320점의 붉은 주자가 들어온 기록이 남아있으며 같은 해에 추가로 1,635점의 주자가 유입되었다.<sup>43</sup> 이 기록을 연구한 볼커(Volker) 박사는 붉은 자기가 의홍 자사호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sup>44</sup> 그리고 사무역으로 추정되는 나소(Nassau) 무역선의 물품 목록에도 82점의 붉은 주자가 보인다.<sup>45</sup> 영국의 무역 주문 내역에는 1700년에 동인도회사가 458점과 52점의 붉은 주자를 들여왔다는 기록이 있다.<sup>46</sup> 이 기록에 의하면 붉은 색의 주자를 일종의 보너스로써 찻잎과 함께 포장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sup>47</sup>

난파선 출수품으로 발견된 자사호의 경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선박인 오스터랜드(Oosterland)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695년 바타비아(인도네시아)에서 출항하여 여러 동인도 항구들을 거쳐 가던 중 1697년 5월 24일에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 부근에서 침몰하였다. 그 후 1988년 잠수부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중국, 일본, 페르시아 도자기등이 출수되었다. 각 항목 당 발견된 물품의 수가 작은 것으로 보아 사무역일 가능성이 크다. 발견된 자사 다구 중에는 주자 10점과 찻잔 2점 이외에도 97개의 파편들도 있었다. 장식기법으로는 아플리케(applique)와 틀 성형(pressed-mould)이 된 것이 있었다. 유물 몇 점을 예로 살펴보면 꽃과 매화나무를 모티브로

<sup>41</sup> C. J. A. Jörg, *Interaction in Ceramics: Oriental Porcelain & Delftware* (Hong Kong: The Council, 1984).

<sup>42</sup> *Yixing Purple Clay Wares*, 앞의 책, pp. 21-23.

<sup>43</sup> Wong and Cheng, 앞의 책, p. 49.

<sup>44</sup> Patrice Valfré, *Yixing: Teapots for Europe* (Poligny: Exotic Line, 2000), p. 117.

<sup>45</sup> Godden, 앞의 책, p. 62.

<sup>46</sup> Marvin Sweet, *The Yixing Effect: Echoes of the Chinese Scholar*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2006), p. 76.

<sup>47</sup> Godden, 앞의 책, p. 38.

아플리케 장식한 구형 주자, 그리고 구름, 용, 새 문양을 첩화 장식한 구형 주자 등이 있다(도 19). 이외에도 기하학적인 배경에 틀로 찍어 용무늬 장식을 새긴 육각형 주자 등이 있다.<sup>48</sup>

겔더말슨(Geldermalsen)호는 1752년에 124개의 금·은괴, 140,000개의 도자기와 함께 가라앉았다. 1983년에 난파선 탐험가인 마이클 해처(Michael Hatcher) 선장이 발견하였다. 출수된 물품 중에 8점의 자사호가 있었는데, 발견 당시 선박 위쪽에 위치하였고, 선박 화물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소량이 발견되었지만 수입된 자사호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준다. 발견된 예는 갈색 배경에 노란색 용이 첩화 장식된 원형 주자, 뚜껑에 공을 물고 있는 사자개가 조각된 팔각형 주자, 대나무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 손잡이와 주구의 주자 그리고 구 형태의 주자가 있다(도 20, 20-1).<sup>49</sup>

중국의 범선인 텍싱(Tek Sing)은 1822년 수마트라 연안 부근 벨비데르 암초에서 난파되었다. 난파선에서 발견된 물품 목록에는 5점의 의흥 주자만 언급되었고 회수된 총 수량은 언급되지 않았다.<sup>50</sup>

유럽에서 의흥 자사호에 대한 언급은 당시 커피 상인이었던 필립 실베스트르 뒤푸르(Philippe Sylvestre Dufour)의 1685년 “커피와 초콜릿의 새로운 특성(Traits nouveaux et curieux du caffè, du et du chocolat)”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적색 점토와 인화기법으로 제작



도 19 <우스터랜드 호에서 인양된 자사호>, c.1695, European Yixing (Valfré, Patrice. Yixing: teapots for Europe. p. 145)



도 20-1 <겔더말슨호에서 인양된 자사호 4점, 1752>, c.1750, 크리스티 경매 암스테르담Christie's Amsterdam (Valfré, Patrice. Yixing: teapots for Europe. p. 146)

48 Valfré, 앞의 책, p. 145.

49 C.J.A.Jörg, *The Geldermalsen History and Porcelain* (Groningen: Kemper Publisher, 1986), p. 104.

50 Sweet, 앞의 책, p. 58.

한 주자는 그 어떤 것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작 부분에 있는 삽화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아주 아름답다.”<sup>51</sup> 이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럽인들은 자사호가 차 마시기에 최상의 다도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수입된 자사호의 모방품은 영국 스탠퍼드셔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북 스탠퍼드셔의 우수한 지질학적 및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툰스톨(Tunstall), 버슬렘(Burslem), 핸리(Hanley), 스톡(Stoke), 펜턴(Fenton), 롱턴(Longton) 마을들이 모여 포터리즈(The Potteries), 즉 도자기 산업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이곳은 도자 제작의 주 원료가 되는 석탄과 흙이 풍부했고 이외에도 원료를 분쇄하고 수비하는데 필요한 물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sup>52</sup>

스태퍼드셔에서 의흥 자사호를 모방한 도공들 중 주목할 만한 이들은 일러스 형제(Elers brother), 존 드와이트(John Dwight), 애스트버리(Astbury), 토마스 윌던(Thomas Whieldon), 조사이어 웨지우드(Josiah Wedgwood)이며,<sup>53</sup> 이 들 중에서도 네덜란드 출신인 존 필립 일러스(John Philip Elers)와 형제인 데이비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1686년에 영국으로 온 뒤 스탠퍼드셔에서 공방을 운영하다 1690년경에는 런던 북스홀(Vauxhall)에 있는 공장에서 붉은 주자를 제작하였다.<sup>54</sup> 차와 커피를 위하여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붉은 석기로 명성을 쌓았으며 이 제품들은 종종 붉은 자기라고도 불렸다. 후에 영국의 근대적 도자제작 기술의 창시자로 칭송받는 조사이어 웨지우드는 일러스 형제의 제작 기술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그는 현지에서 채취한 자사로 커피와 다도구의 기능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또한 개선된 선반기술로 더 고른 표면 마감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미세한 표면 처리 덕분에 런던에서 일러스 형제는 한 도자기당 12실링에서 24실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의 완성도 높은 기술과 장식의 우아함은 70년 후에 웨지우드가 고대 적색 자기(Rosso-Antico)를 모방하는 것에도 영감을 주었다.<sup>55</sup> 더 나아가 일러스 형제는 현지에서 구한 자사를 철분과 망간으로 진하게 염색하여(staining) 유약을 시유하지 않는 검은색 석기도 제작하였다.<sup>56</sup>

<sup>51</sup> Sweet, 앞의 책, p. 69.

<sup>52</sup> Reginald G. Hagger, A.R. Mountford and J. Thomas, *The Staffordshire Pottery Industry* (Stafford: Staffordshire County Library, 1981), p. 1.

<sup>53</sup> Valfré, 앞의 책, p. 149.

<sup>54</sup> Hagger, 앞의 책, p. 5.

<sup>55</sup> 1760년대에 웨지우드는 일러스 형제가 제작한 붉은 석기 형식으로 붉은 도기를 제작하며 중국 자사호를 모방하는 것처럼 'W' 라는 마크를 찍었다. Wolf Mankowitz, *Wedgwood* (Leicester: Magna Books, 1980), pp. 113-116.

<sup>56</sup> Hagger, 앞의 책, p.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지안 시대의 풍속화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붉은 석기 주자의 양식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다음(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풍속화에 보이는 주자는 전반적으로 붉은색 계통의 자사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당시 유럽으로 수출된 자사호가 대부분 붉은색 계통임과 동시에 영국 스탠퍼드셔에서 중국 자사호를 모방하여 제작된 붉은 석기 주자 또한 붉은색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영국에서 제작된 주자의 형태는 중국의 자사호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동시대의 은기 주자를 표본으로 한 것도 있다(도 6, 8, 9). 1740년대에 제작된 것은 사각형의 몸체에 도식화된 식물문이 양각으로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다(도 11). 이후 1750년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서 디비스의 <힐 부부>에서 상세하게 묘사된 주자와 같이 구형의 몸체에 화려한 식물문으로 첩화장식이 된 것을 볼 수 있다(도 12). 이 시기 중국에서 수출된 자사호(도 13)와 영국에서 제작된 붉은 석기 주자는 모두 제작지의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기술과 양식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화된다(도 14). 갤터말슨호에서 인양된 자사호와 같이 몸체와 장식의 색을 달리 제작한 것을 볼 수 있다(도 20-1). 이는 영국식 미감을 반영해 중국에서 자사호를 제작한 경향 혹은 웨지우드 등 이 시기 영국도자기술의 발전이 붉은 석기 주자 제작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760년대에는 시대적 스타일을 반영하듯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중국 자사호도 수입된다(도 17). 같은 시기에 스탠퍼드셔에서 제작된 붉은 석기는 자사호의 원통형 몸체에 로코코(Rococo)스타일의 시누아즈리(Chinoiserie)장식 요소가 더해진 주자가 제작되는 양상을 보인다(도 18).

## V. 맺음말

중국의 자사호가 영국으로 수입되고 다시 영국에서 붉은 석기가 자체 제작되는 그 과정을 본고에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단순히 디자인의 모방 양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영국 도자가 발전을 거듭하여 전성기를 누리기까지 그 원초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7세기 말부터 네덜란드에서 온 일러스형제가 스탠퍼드셔 지역에서 의흥 자사호를 모방한 붉은 석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원료의 한계로 18세기 중반이 되어야 제작되기 시작한 자기와는 다르게 기술과 원료의 장벽이 낮은 이유로 영국의 붉은 석기는 의흥 자사호가 수입되고 차 문화가 성행함과 동시에 어려움 없이 발전될 수 있었고, 그 기반이 웨지우드의 도자 제작 기술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영국 내 자체적으로 자기 생산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영국식 미감으로 완전히 진화되는 것도 살펴 볼 수 있다. 결국 18세기 중반에는 영국 스탠퍼드셔 북부(North Staffordshire)에 도자 제조업

을 하는 곳이 130여 곳 정도나 되었다.<sup>57</sup> 이렇게 기술력과 미감은 도자기의 다양성에 꽃을 피웠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유연성을 제공 하였으며 그들의 테이블은 더욱 조화롭게 장식되었다.

**\*주제어(key words)**\_18세기 영국 조지안 시대(18th century Georgian England), 풍속화(Conversation piece), 영국 동인도 회사(English East India Company), 녹차(Green tea), 홍차(Black tea), 다기세트(Tea set), 중국수출자기 (Chinese export porcelain), 의흥 자사호(宜興 紫沙壺, Yixing Zisha Teapot), 영국 스태퍼드셔 붉은 석기 주자(English Staffordshire Red Stoneware Teapot), 일러스 형제(Elers brothers), 청화백자(Blue and white porcelain), 은제 다도구 (Silver Teawares)

■ 투고일 2017년 9월 8일 | 심사개시일 2017년 12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8년 1월 22일 ■

---

<sup>57</sup> Emmanuel Cooper, *10,000 Years of Potte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2000), p. 227.

〈표 1〉 회화에 등장하는 자사호와 유사 도자기 비교

연도	회화 작품	유사 도자기 1	유사 도자기 2	유사 도자기 3
c.1715	(도 3) 〈차 마시는 두 여인과 장교〉 	(도 4) 〈중국 의홍 자사호〉, 16-17세기, 자사, 7cm×12cm 		
	(도 5) 요셉 반 아겐, 〈차 마시는 영국인 가족〉 	(도 6) 〈영국 스테퍼드셔 붉은 석기 주자〉, 1750-1765, 자기, 22.9×20.3cm 		
1740	(도 7) 프란시스 헤이만, 〈조난단 타이어스와 그의 가족〉 	(도 8) 〈중국 의홍 자사호〉, 1675-1725, 자사, 높이 10.5cm 	(도 9) 〈영국 스테퍼드셔 붉은 석기 주자〉, c. 1765, 자사, 9.5×13.5cm 	(도 20) 〈켈터말슨호에서 인양된 자사호〉, c.1750 
	(도 10) 프란시스 헤이만, 〈게스코와뉴 가족〉 	(도 11) 〈중국 의홍 자사호〉, 1675-1725, 자사, 9.5cm×14.5cm 		
1750	(도 12) 아서 디비스, 〈힐 부부〉 	(도 13) 〈중국 의홍 자사호〉, 1700-1750, 자사, 16.5cm×24.5cm 	(도 14) 〈붉은 석기 주자〉, c.1750-1770 	(도 20-1) 〈켈터말슨호에서 인양된 자사호 4점〉, 1752 
	(도 16) 요한 조파니, 〈햐튼 하우스 정원에서 다회를 즐기는 데이비드 개릭 부부〉 	(도 17) Qian Zhong Lin, 〈중국 의홍 자사호〉, 17세기 중반, 자사, 8.4cm×12cm 	(도 18) 〈영국 스테퍼드셔 붉은 석기 주자〉, c.1760, 자사, 10.8cm×9.2cm 	

## 참고문헌

### 1. 서양어 문헌

- Algeron, Graves. *The Society of Artists of Great Britain, 1760-1791, the Free Society of Artists, 1761-1783: a complete dictionary of contributors and their work from the foundation of the societies to 1791*, Bath: Kingsmead Reprints, 1969.
- Berg, Maxine. *Luxury & Pleasure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Boger, Louise Ade. *The Dictionary of World Pottery and Porcelain: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Present*, New York: Scribner, 1971.
- Brown, Peter B. *In Praise of Hot Liquors: the Study of Chocolate, Coffee and Tea-drinking 1600-1850*, York: York Civic Trust, 1995.
- Chaudhuri, Kirti N. *The Trading World of Asia and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1660-176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6.
- Cooper, Emmanuel. *10,000 Years of Potte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2000.
- D'Oench, Ellen G. *The Conversation Piece: Arthur Devis & His Contemporaries*, New Haven, CT: Yale Center for British Art, 1980.
- Edwards, Diana and Hampson, Rodney. *White Salt-Glazed Stoneware of the British Isles*, Suffolk: Antique Collector's Club Ltd., 2005.
- Emmerson, Robin. *British Teapots and Tea Drinking 1700-1850*, London: HMSO, 1992.
- Fortune, Robert. *Three Years' Wanderings in the Northern Provinces of China, including a Visit to the Tea, Silk, and Cotton Countries; with an Account of the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of the Chinese, New Plants, etc.*, London: John Murray, 1847.
- Godden, Geoffrey A. *Oriental Export Market Porcelain and its Influence on European Wares*, London: Granada, 1979.
- Goff, Moira and John Goldfinch. *Georgians Revealed: Life, Style and the Making of Modern Britain*, London: British Library Board, 2013.
- Haggart, Reginald G., A. R. Mountford, and J. Thomas. *The Staffordshire Pottery Industry*, Stafford: Staffordshire County Library, 1981.
- Hall, Andrew and Cessfold, Craig. "Chinese Porcelain from an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Coffeehouse."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Newsletter* 23 (November, 2015), pp. 25-29.
- Hoh-Cheung and Mui, Lorna H. "The Commutation Act and the Tea Trade in Britain 1784-1793." *The Economic History Review* 16, no. 2, 1963.
- Jörg, C. J. A. *Interaction in Ceramics: Oriental Porcelain & Delftware*, Hong Kong: The Council, 1984.

- \_\_\_\_\_. *The Geldermalsen History and Porcelain*, Groningen: Kemper Publisher, 1986.
- Kerr, Rose and Mengoni, Luisa E. *Chinese Export Ceramics*, London: V&A Publishing, 2011.
- Madsen, Andrew and Carolyn L. White. *Chinese Export Porcelain*,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2011.
- Mankowitz, Wolf. *Wedgwood*, Leicester: Magna Books, 1980.
- Nguyễn, Đinh Chiển. *The Ca Mau Shipwreck 1723-1735*, Ha Noi: Ca Mau Department of Cultural and Information, The National Museum of Vietnamese History, 2002.
- Reade, Arthur. *Tea and Tea Drinking*, London: S. Low, Marston, Searle & Rivington, 1884.
- Saberi, Helen. *Tea: A Global History*, London: Reaktion Books Ltd, 2010.
- Snodin, Michael. *Design & the Decorative Arts: Britain, 1500-1900*, London: V&A, 2001.
- Sweet, Marvin. *The Yixing Effect: Echoes of the Chinese Scholar*,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2006.
- Tharp, Lars. *Hogarth's China: Hogarth's Painting and Eighteenth-century Ceramics*, London: Merrell Holberton, 1997.
- Valfré, Patrice. *Yixing: Teapots for Europe*, Poligny: Exotic Line, 2000.
- Williamson, George Charles. *English Conversation Pictures of th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New York: Hacker Art Books, 1975.
- Wong, Kin Leung and Cheng Yang. *Chinese Yixing Teawares: From the Collection of the MAI Foundation*, Taipei: Art Media Resources, 2000.
- Yixing Zi Sha Tao Qi: Cha Ju Wen Wu Guan Luo Guixiang Zhen Cang = Yixing purple clay wares: the K.S. Lo Collection, Flagstaff House Museum of Tea Ware, Xianggang: Kang le ji wen hua shi wu shu, 1994.*

## 2.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 Natioanl Portrait Gallery, "Jonathan Tyers and His Family." Npg.org.uk.  
<http://www.npg.org.uk/collections/search/person/mp02104/francis-hayman> (accessed May 25, 2017).
- National Gallery of Art, "Devis, Arthur." Nga.gov.  
<https://www.nga.gov/content/ngaweb/Collection/artist-info.1224.html> (accessed June 15, 2017).
- Tate, "An English Family at Tea." Tate.org.uk.  
<http://www.tate.org.uk/art/artworks/van-aken-an-english-family-at-tea-n04500> (accessed June 1, 2017).
- Tate, "Joseph Van Aken." Tate.org.uk.  
<http://www.tate.org.uk/art/artists/joseph-van-aken-562> (accessed June 1, 2017).
- Victoria and Albert Museum, "Two ladies and an officer seated at tea." Vamac.uk.  
<http://collections.vam.ac.uk/item/O63617/two-ladies-and-an-officer-oil-painting-unknown/> (accessed June 1, 2017).
- Yale Center for British Art, "Mr. and Mrs. Hill." Britishart.yale.edu  
<http://collections.britishart.yale.edu/vufind/Record/1665168> (accessed June 15, 2017)

## 국문초록

18세기 영국 조지안 시대(Georgian Period, 1714-1830)에는 차 소비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과 급증하는 도자기의 수요가 중국과의 무역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와 동시에 영국의 내부적인 도자 제작기술은 영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자기로 중국수입자기와 시장에서 경쟁할 만큼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잘 반영하는 것이 이 시기 유행한 컨버세이션 피스(Conversation Piece)라는 풍속화이다. 개인 중심의 공식적인 초상화의 틀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일상적인 모습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며 그들의 세계관, 즉 그들의 '대화 주제'가 되는 사물에 관점이 더욱 집중 된다는 점에서 물질문화적인 면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묘사된 차 문화와 다기세트의 다양한 조합의 분석을 통해 당시 취향의 변화와 중국수입자기와 영국 자기제작기술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풍속화에서 보이는 자사호와 청화백자의 조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통기성 좋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열전도율이 낮은 자사호는 발효차인 홍차를 즐겨 마셨던 영국인들의 기능적이고 미적인 요소를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다도구였다. 원료의 한계로 18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제작되기 시작한 자기와는 다르게 자사호의 모방은 영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스탠퍼드셔 지역을 중심으로 일러스 형제들(Elers)에 의해 제작되었다. 18세기 동안 풍속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구성 속에 붉은 석기의 형태가 어떻게 시대별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고찰한 결과 이른 시기에 보이는 자사호는 찻잔과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작으나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형태도 각이진 구형, 육각형, 원통형 그리고 자연을 모티브로 한 나무 통형 등이 보이며 장식 기법은 틀 성형, 인화, 첩화 등 특히 1740-50년대에 제작된 것은 몸체 전면에 틀 성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다.

**Abstract**

## **A Study of Chinese Yixing Zisha Teapot and English Red Stoneware Teapot in Georgian Conversation Piece**

**Lee, Jung min**\*

During the Georgian Period (1714-1830) in England, the social and cultural importance of tea consumption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ceramics promoted the trade between England and China. Meanwhile, manufacturing techniques of ceramics within England rapidly developed so that English ceramics that suit the taste of English people could compete with Chinese porcelain exported to England. This cultural phenomenon is well illustrated in the conversation pieces which were popular in England during the period. Conversation pieces depicted an everyday domestic scene, illustrating a family or friends drinking tea together, rather focused on an individual figure like in formal portraits. As these group portraits usually present the objects that served as the subjects of the conversation among the figures in the paintings, they could be important visual evidence for studying the material culture of the period. This article examines the teawares in the conversation pieces to demonstrate the English taste in ceramic consump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export porcelain and the techniques of porcelain production in England.

While the production of porcelain began in England much later than in China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materials, the imitation of Chinese zisha teapot was carried out in England

---

\* Korea University

by the Elers Brothers in Staffordshire not so much later than when Yixing teapots began to be imported to England by East India Company in early eighteenth century. A frequent appearance of Chinese Zisha teapots with blue and white porcelains in the conversation piece suggests the popularity of red stoneware teapots among English people. It was fashionable and also excellent for black tea as it breathes and retains heat well. Also, the conversation pieces show that, the red stoneware teapots were as small as teacups in the beginning but gradually became bigger. They had various shapes including round, hexagonal, cylindrical shapes and a form of a tree trunk, which were inspired by forms in nature. The teapots were constructed with molding, stamping and applique decorative techniques. And especially the ones manufactured between 1740 and 1750 were molded to carry rich decorations all over the body.